

뉴스홈 | 최신기사

##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1년 앞으로...사상 첫 중동 월드컵

송고시간 | 2021-11-21 08:33

김동찬 기자  
기자 페이지

32개국 중 13개 나라 본선행 확정, 한국도 10회 연속 본선 진출 '눈앞'  
30일부터 월드컵 모의고사 성격의 '아랍컵' 개최



2010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기념하며 만든 대형 유니폼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2022년 11월 21일 개막해 12월 18일까지 32개 나라가 출전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다.

아랍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은 2010년 개최지가 결정됐다.



당시 카타르 외에 한국, 일본, 미국, 호주가 2022년 월드컵 개최에 도전했으나 카타르가 최종 라운드에서 미국을 14-8로 제치고 개최권을 따냈다.

이때 우리나라는 3라운드까지 진출했는데 3라운드에서 5표를 얻어 11표의 카타르, 6표의 미국에 밀려 탈락했다.

카타르는 1995년 FIFA U-20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고 2006년 아시안게임, 2011년 아시안컵 축구, 2015년 세계핸드볼선수권 대회, 2019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을 치른 경험이 있는 나라다.

다만 월드컵이 통상적으로 열리는 6월 카타르 기온이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는 등 축구 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11월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	----	----	----	----	----	---	---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월드컵 축구대회가 5~7월이 아닌 시기에 개막하는 것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이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중 한 곳인 974 스타디움

[로이터=연합뉴스]

경기는 카타르 수도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의 8개 경기장에서 나눠 펼쳐진다.

최근 월드컵이 열린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는 한 나라 안에서도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카타르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경기장 간 이동 거리가 짧은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장은 루사일 스타디움을 제외한 7개 경기장이 완공됐다. 이 경기장들은 30일 개막하는 아랍컵을 월드컵의 테스트 이벤트' 형식으로 치르며 혹서 모를 문제점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루사일 스타디움은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된다.

32개 나라가 출전하는 카타르 월드컵에는 이미 13개 나라가 본선행을 확정했다.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세르비아,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가 일찌감치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 데뷔골 장소에서 A매치 30호골 성공

(도하=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6차전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A매치 30호골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성, 황인범, 손흥민.

손흥민은 2011년 1월 18일 이곳에서 열린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성공시켰으며 오늘 골로 A매치 통산 30골을 기록했다. 2021.11.16 superdoo82@yna.co.kr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선행 확정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

아시아 최종 예선 A조에서 4승 2무로 조 2위인 우리나라(승점 14)는 조 3위 아랍에미리트(UAE)의 승점 6을 8점이나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앞서 있다.

남은 네 경기에서 UAE가 전승을 하더라도 승점 18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승 2무만 하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주는 조 2위 이상을 확보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된다.

유로 2020 우승팀 이탈리아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끄는 포르투갈 등은 유럽지역 예선 조 2위로 플레이오프로 밀려났다.

이들은 12개 나라가 본선행 티켓 3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

월드컵 개막 1년 전에 월드컵 개최국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올해 월드컵 개막 1년 전 '모의고사' 형식으로는 아랍컵이 열린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6개 나라가 출전해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회가 진행되며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같은 조에 있는 이라크, UAE, 시리아, 레바논도 이 대회에 출전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팀 일정						
FIFA WORLD CUP Qatar 2022 현지시간 기준 *홈 경기						
21년	9월 2일	*이라크전	0 : 0	무		
	9월 7일	*레바논전	1 : 0	승		
	10월 7일	*시리아전	2 : 1	승		
	10월 12일	이란전	1 : 1	무		
	11월 11일	*UAE전	1 : 0	승		
	11월 16일	이라크전	3 : 0	승		
22년	1월 27일	레바논전				
	2월 1일	시리아전				
	3월 24일	*이란전				
	3월 29일	UAE전				
A조 현재순위 승 무 패 승점 득실차						
1	이란	5	1	0	16	+9
2	한국	4	2	0	14	+6
3	UAE	1	3	2	6	-1
4	레바논	1	2	3	5	-2
5	이라크	0	4	2	4	-6
6	시리아	0	2	4	2	-6
B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일본						
자료/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2021111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그래픽]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팀 일정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sunggu@yna.co.kr

email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21 08:33 송고

#카타르 #월드컵 #개막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42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5
-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61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동재개 예열?

56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40

뭐하고 놀까? #홍→

##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뚱뚱...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토론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확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생활유무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계사관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